
試驗所 敷地購入에 따른 새 覺悟

西獨의 “텔레폰겐”을 爲始하여 世界的으로 이름 높은 企業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 이로 인한 西獨의 經濟沈滯는 深刻한 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西獨의 經濟復興을 “라인江의 奇蹟”이라고 부러워하던 日本이 이제는 오히려 世界經濟를 휘어잡고 있으며, 西獨을 爲始한 他先進國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고 있으니 今昔之感이 있는 것이다.

世界各處에서 “日本을 배우자”는 口號가 외쳐지고 있는 背景을 업고 窠대가 높아진 日本은 우리나라에 대한 侵略조차도 “進出”로 遁甲시키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런 結果가 빚어졌을까? 西獨과 日本과의 對照의인 모습은 그 原因을 여러 가지로 分析할 수 있겠으나, 그 中の 하나로 “技術開發에 대한 熱意의 差異”로 歸結될 수 있을 것 같다. 卽 日本은 그 동안 꾸준한 熱心을 가지고 技術開發에 힘써 온 데 반하여 西獨은 日本보다는 이 方面에 게을렀다는 것이다.

“技術開發 없이 生存하기 힘들다”는 口號가 요즈음처럼 實感되는 때도 드물다고 보겠다.

周知하다시피 우리 周邊에는 中共을 비롯한 많은 競爭國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과 피나는 競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競爭에서의 勝敗는 技術開發에 대한 國民들의 熱意가 左右한다고 해도 과히 틀리는 말은 아닐 것이다.

防火技術의 開發이라는 分野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中共에 뒤져 있다. 卽 中共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英國·西獨等 先進國에 防火技術을 習得키 위해 研修生을 보내었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 北京 및 上海에 “消防研究所”를 設立하였다. 우리가 이들보다 한두 걸음 처진 것이 아니다.

어느 分野이건 이 式으로 나갔다가는 數年後 우리와 中共과의 比較는 족히 될 수가 없을 것이다. 多幸히 우리는 며칠 前에 試驗所 敷地를 마련하였다. 이제 우리 民族의 防災科學技術分野는 우리의 어깨에 떠맡겨진 셈이다. 때는 늦었지만 부지런히 先進國들을 따라가야 하겠다.

그러나 이 길의 前途에는 많은 障礙物이 豫想되고 있다. 그 中 가장 큰 障礙物로 될 수 있는 것은 意外로 外部原因 아닌 內部原因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기본”이 로마 帝國의 滅亡原因을 內部的 崩壞에서 찾았듯이 어느 일의 成敗는 그 內部的 原因으로 左右될 경우가 많다.

요컨대 技術開發의 必要性에 대한 確固한 信念과 熱意·團結이 成功의 關鍵이 아닌가 한다. 敷地購入에 즈음하여 새로운 覺悟를 하여 본다.